

욕망, 행복, 자유

: 위기에 대한 인문학적 대응

도 정 일(경희대 문과대학 명예교수)

(1) 하버드 의과대학이 정신의학 분야에서 진행해온 연구 중에는 1937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장장 72년간 계속되고 있는 유명한 장기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발달연구’(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또는 ‘그랜트 연구’(Grant Studies)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1930년대 말과 40년대 초에 하버드대학에 재학했던 2학년생들 가운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판단된 학생 268명을 추천받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들이 대학 졸업 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들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추적한 긴 연구 작업입니다. 연구대상이 된 40년대 초 학번들 중에서는 한 명의 대통령과 4명의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저명 작가, 의사, 시민운동가, 사업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물론 일찍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미 80대 후반의 고령입니다. 그 생존자들의 생애가 종결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수집된 자료 전체에 대한 정리가 끝날 때까지 대학 사상 최장의 기간에 걸친 이 야심적인 시계열(longitudinal) 연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를 당장 궁금하게 하는 것은 재학 시절 건강하고 똑똑하고 발랄했던 그 하버드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모두 행복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모두’라는 말은 이런 경우 전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연구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이 동화 속에서처럼 모두 행복하고 성공적인 생애를 보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단순한 것일 수 있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아예 연구거리조차 되지 않겠지요. 아닌 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술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져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2차 대전에서 전사한 사람, 약물과용으로 중년에 생을 마감한 사람, 우울증 같은 정신신경질환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람 등, 젊은 시절의 그들에 대한 일반적 기대와는 아주 다른 삶을 살다 간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기대(expectation)와 전제(premise)는 물론 같은 것이 아니지만, 삶이 어떤 전제로부터 출발해서 논리적 결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듯이 기대한 대로 전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찍 죽은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연구 참여자)이 무엇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무엇을 불행이라 규정하며 살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행복하게 하는 조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버드 연구에 대해 우리가 갖는 궁극적인 관심의 하나는 그 연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행복한 삶이 ‘좋은 삶’의 한 형태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질문은 좋은 삶을 위한 공식(“a formula for a good life”)이 있는가, 하버드 연구로부터 우리가 그런 공식, 혹은 어떤 공식 비슷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이 됩니다.

(3) 제가 오늘 가정관리학회 학술총회에서 하버드 연구를 언급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가정관리학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내밀한 일상적 삶의 영역입니다. 가정은 누구에게나 탄생과 성장의 장소이며 최초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공간임과 동시에 생의 최종적 종결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가정을 만들고 가정에서 죽습니다. 극소수 예외가 있겠지만, 인간은 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가정이라는 이름의 일상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도 그 일상의 삶 속에 있습니다. 신화의 오딧세우스 이야기는 집을 떠나 10년간 전장에 나갔던 남자가 다시 10년의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곧 귀향의 서사입니다. 그가 돌아가고자 한 집은 그의 아내와 아들이 있는 그의 ‘가정’이고 그의 ‘일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사시 <오딧세이아>는 비범한 전쟁 영웅이며 모험의 대가인 오딧세우스가 결국 평범해 보이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토록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돌아감’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자기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는 불행조차도 행복이며, 그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어떤 행복도 그에겐 불행입니다. 이 대목의 오딧세우스에게는 시시한 일상이 위대한 일상입니다.

(4) 이 관점에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을 일상성의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a) 일상의 삶이 그 일상성을 상실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만족감이거나 b) 삶을 일상성의 수준 너머로 개선하려는 욕망이 충족될 때의 성취감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행이란 a) 일상의 삶이 안정적 일상성을 잃었을 때의 불안감, 혹은 b) 일상의 삶을 개선하려는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의 불만입니다. 저는 가정관리학에 대해선 사실상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학문 분야가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행복과 불행의 문제에 결코 무관심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버드 연구를 평생 이끌어 온 정신의학자 조지 배일런트 교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에 이르는 데는 여러 요인이 개입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적응력,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요인들은 모두 일상적 삶의 영역, 곧 가정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은 아이들에게 최초의 적응환경이고 최초의 교육장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아이들이 적응력을 키우고 위기관리능력을 배우는 곳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이른 나이에, 성숙한 적응력을 발휘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미숙성의 덩어리입니다. 그 미숙한 아이는 가정이라는 환경을 통해 천천히, 달팽이처럼 아주 천천히, 그를 둘러싼 일상의 사회관계에 적응하고 그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웁니다. 그가 상실, 슬픔, 고통, 실패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위기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기본 능력들을 키우는 것도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이런 능력은 후일 그가 그 자신의 결혼생활에 닥칠 수 있는 각종의 위기들을 어떻게 관리해내는가에 결정적 관건이 됩니다. 배일런트가 말한 ‘안정된 결혼생활’은 최소 공동체로서의 가정 혹은 가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패러다임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이미 그 자체로 성공적 적응의 결과이자 그 효과일 터이지만, 그 가정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는 성숙한 위기관리능력의 발휘와 일상의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저는 이 학회의 금년 춘계학술대회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돌아본 일상생활문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위기이건 어떤 다른 위기이건 간에, 위기라는 것은 가장 간단히 정의했을 때 ‘정상성(normalcy)으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같은 정의방식을 적용하면,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위기 이전의 정상적 상태로 복귀하고 상실된 정상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정상성과 일상성은 반드시 같은 개념범주의 것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일상적 질서를 정상성 혹은 정상적 질서로 간주합니다. 이 점에서 위기는 일상 질서에 일어난 불안한 동요와 파탄을, 더 극단적인 경우는 그 질서의 과격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참으로 난처한 것은 그 정상성이 누가 어떤 기준에서 정의한 정상성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정상성 혹은 정상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정신의학도 이 점에서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학에서도, 심지어 교육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정상성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상성이란 것이 아무 고통도 문제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정상적 가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정상을 말하고 어떤 것이 정상적이다, 아니더라는 식으로 진단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비교적 쉽게 정상성 여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 혹은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지배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환경(사회관계, 인간관계)을 늘 정상성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정상적 인간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적 삶의 질서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정상적 인간이라 여겨지는 것이지요.

(6)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제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그동안 한국인 대다수가 적응해왔거나 적응하고자 노력해온 지배적 경제환경(금융자본주의와 자유시장체제)에 발생한 세계적 국지적 파탄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그 파탄의 원인이었는가를 캐고 드는 일은 지금 저의 관심사가 아니고 제가 다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저의 관심사는 이른바 경제적 위기상황이라는 것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능력과 인문학적인, 또는 인문적인 문화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종류의 위기를 만납니다. 사실 경제위기라는 것은, 비록 그 직접적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대면해야 하는 많은 위기들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사람의 행복은 마음의 안락과 몸의 보존이라는 두 차원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 두 차원 사이의 균형과 연결이 깨지고 부조화(disharmony)가 발생할 때 행복은 달아납니다. 우리가 적응이라 부르는 것도 그 두 차원에서의 적응, 곧 심리적 적응과 신체적 적응의 두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적 적응이 성공적일 때 ‘마음의 안락’이 확보되고 신체적 적응이 성공적일 때 ‘몸의 보존’이 가능해집니다. 신체적 적응이나 몸의 보존이 물질적 경제적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면 심리적 적응 혹은 마음의 안락은 대부분 정신적 문화적 요인에 의존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 교육, 혹은 인문적 훈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적 정신적 적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작게는 개인이, 크게는 사회 전체가, 경제위기를 포함한 온갖 형태의 위기에 대응하고 위기를 관리할 능력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문학의 사회적 기능이자 효용이라 생각합니다. 인문학자들 중에는 인문학의 용도와 실용성, 그것의 사회적 효용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사회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에 대응하고 그것을 극복할 정신적 심리적 능력을 키워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면 인문학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인문학 교육이라는 것도 의미를 상실합니다. 인문학 교육은 인문학 전공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장차 어떤 직종에 진출하건 간에, 평생 그들을 지원하고 지탱할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 인문학 교육입니다. 평생에 걸친 인문학적 ‘지원’이란 어떤 전문적, 직업적, 기술적 능력보다는 모든 종류의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능력의 발휘를 의미합니다. 인문학 교육이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학부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문학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직접적인 유효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심리적 정신적 관리능력의 함양에 관한 한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7) ‘경제위기상황에서 돌아본 일상생활문화’라는 주제에서 ‘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인문학적인 태도의 표현입니다. ‘돌아보기’는 인문학이 모든 경우에 강조하는 성찰과 반성의 행위이며 우리 자신을 거울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학회가 점검할 일상생활문화가 어떤 구체적 내용의 것일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문화’를 염두에 두고 말하면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들의 목록 일부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로 성찰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지난 15년 혹은 짧게 잡아 10년 사이에 ‘행복을 과잉강조하는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행복의 적대자가 아니고 행복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위험하고 유아적인 어떤 관점,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고 깊게 스며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데올로기에서 행복은 고통 없는 안락, 지속적이고 항구한 행운, 고생 없는 즐거움, 즉각적 충족과 기만적 만족으로서의 행복입니다. 한 사회가, 개인과 집단이, 이 종류의 행복 이데올로기 혹은 행복문화에 침잠하고 거기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극히 위험한 문화입니다. 첫째는 그런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둘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런 행복 이데올로기로는 어떤 위기에든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일상의 삶은 위대한 것이지만 그것이 위대한 이유는 거기 고통, 희생, 슬픔이 없거나 좌절과 실패의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늘 거기에 있고 그것들과의 씨름을 통해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라는 세대에게 한 쪽으로만 기운 행복 이데올로기를, 고통 없는 안락과 즉각적 충족과 지속적 행운만을 행복이고 ‘웰빙’이라 가르쳐온 것은 아닌가, 어른의 사회 자체가 그런 행복의 추구에 경도해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위기에 맞설 능력과 위기를 관리할 능력을 크게 상실해버린 유아적 미숙성의 사회를 만들어온 것은 아닌가? 병리적 우울증, 빠른 포기과 좌절, 자살현상 등은 그런 미숙한 사회의 미숙한 대응력을 대표합니다.

(8) 문화적 성찰의 목록에서 두 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이른바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 문화를 과도하게 키워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화는 우리가 적응해온, 혹은 적응하고자 노력해온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정적 측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행복의 공식은 ‘욕망 분(分) 소유’--다시 말해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양이 욕망을 얼마나 충족시켜주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크기가 100이고 소유의 양도 100이라면 그것은 욕망의 크기와 소유의 크기가 일치하는 완벽한 충족상태, 곧 100 퍼센트의 행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공식이 틀렸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선 욕망의 크기를 정할 수 없고, 둘째는, 헤겔이 잘 말했듯이, 욕망은 언제나 충족을 한 발 앞서 가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충족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욕망을 소유의 양으로 충족시키려 드는 것은 항구한 불만과 불행감과 결핍감의 생산공식이지 행복의 공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적응하고자 애쓰고 있는 경제체제의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은 이처럼 소유의 무한 증대에 의한 행복달성의 메시지를 우리의 일상 속에 부단히

발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의 메시지를, 행복을 그 틀린 공식을, 자라는 세대에 심어주고 우리 자신 그 공식을 열심히 추종해온 것은 아닌가? 충족을 모르는 욕망을 탐욕이라 한다면 소유적 개인주의 문화는 바로 그런 통제불가능한 탐욕의 문화를 조장합니다. 그것은 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길러주는커녕 그 자체가 위기를 발생시키는 문화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는 그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 경제체제 내부의 이같은 모순에 결정적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9) 이런 문제는 제가 들고 있는 성찰목록의 세 번째 주요 항목, 곧 ‘적응’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어떤 적응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생물학적 의미에서라면 적응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성공적 생존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환경에 대한 최적의 성공적 생존전략이 최적의 것이기는커녕 궁극적으로 생존의 가능성 자체를 파괴하는 것일 때는 어찌 하는가? 이것은 현대 문명이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인간은 이미 자연환경을 넘어 자신이 자기 손으로 만든 문명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긴 했으나 그렇게 만들어진 문명의 체제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자기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지배적’ 사회환경이라 부른 것은 그런 의미의 현실체제를 의미한 것입니다. 어떤 지배적 환경 속에 놓이면 그 환경이 가장 정상적인 질서로 여겨지고,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적응이라 판단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배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이 위험한 것일 때 거기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세계화 맥락 속에서의 자유시장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적응해온, 그리고 열심히 적응하고자 노력해온 지배적 경제환경입니다. 여기서의 ‘시장’은 그냥 보통의 일상적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터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감히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자기논리와 운영체계를 갖고 있어 칼 폴라니가 ‘자기조정의 시장’(SRM, Self-regulating Market)이라 대문자로 표현한 거대한 추상적 체제입니다. 이 체제 속에서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현상은 우리가 시장논리니 시장가치니 하는 용어들로 흔히 표현하는 ‘시장의 원리’가 사회 전 영역에 침투해서 사회 전체를 ‘시장화’하는 사태입니다. 이는 시장이 사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시장 속으로 빨려드는 상황, 곧 시장이 사회를 문자 그대로 ‘잡아먹어’ 버리는 사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사회 영역도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중요한 비시장적 공적 영역들은 물론 심지어 사적 영역들조차도 시장원리의 지배체제 속으로 흡입되고 거기 종속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시장전체주의’라 부르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위기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 가정이라 불리는 일상적 삶의 영역은 전면적인 시장원리로부터 보호되고 방어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은 시장가치를 무시하지 않되 시장가치만으로 재단되지 않는 다른 중요하고 근본적인 인간적, 인문적 가치들이 끝까지 지켜지고 살아 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가정들이 탐욕의 문화, 행복 이데올로기, 시장원리주의의 문화로부터 안전할까요?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행복 외에 ‘자유’까지 얻고자 하다가 쫓겨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행복이란 생존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상태로서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안전한 행복의 동산에서 인간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복종하기만 하면 행복이 보장되지만 자유는 없는 일종의 전체주의 환경입니다. <용감한 신세계>를 쓴 울더스 헉슬리도 비슷한 ‘자유와 행복’의 문제를 즐겨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인간의

행복은 안전성(safety, security)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유무로 결정됩니다. 자유는 인간의 삶을 대단히 복잡한 것이게 합니다. 그 삶 속에는 모순, 갈등, 불행, 아이러니, 역설, 불가예측성이 가득합니다. 그 삶 속에서는 희망, 즐거움, 낙관 같은 긍정적 정서들도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슬픔, 좌절,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들도 반드시 나쁜 효과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정상적이라 여겨지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높은 가치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인문학은 삶의 이런 복잡성(complexity)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내가 나를 넘어 더 큰 것에 연결되게 하고 나와 공동체, 나와 타인이 이어지게 하며 사회적 공존의 정의를 지탱합니다. 저는 이런 훈련이 모든 종류의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문적 문화의 요체이며, 가정은 그런 인문적 가치의 요체들이 가장 잘 함양되고 지켜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